

제 1 교시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

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 | | A | B |
|---|-----|-----|
| ① | 진양성 | 진음성 |
| ② | 진양성 | 위음성 |
| ③ | 위양성 | 위음성 |
| ④ | 위음성 | 진음성 |
| ⑤ | 위음성 | 위양성 |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 ① ㉠을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 ② ㉠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 ③ ㉠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 ④ ㉠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 ⑤ ㉠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A]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7.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9.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내용구조도 | 거시독해의 기준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구체적 개념 제시
B①
(Base)
HW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장 큰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HW →
B①
구체적

LFIA 키트는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

(= 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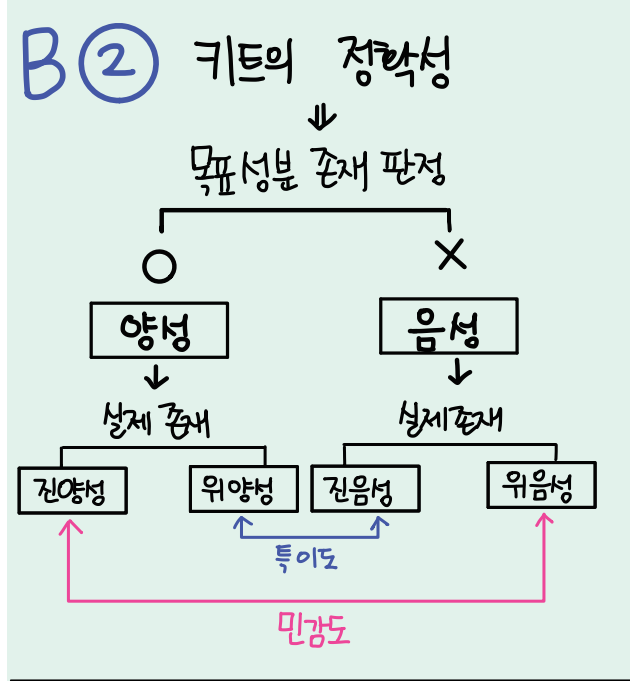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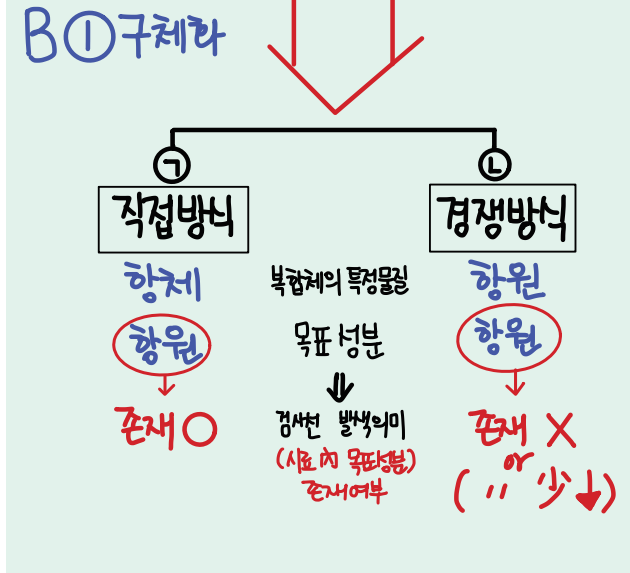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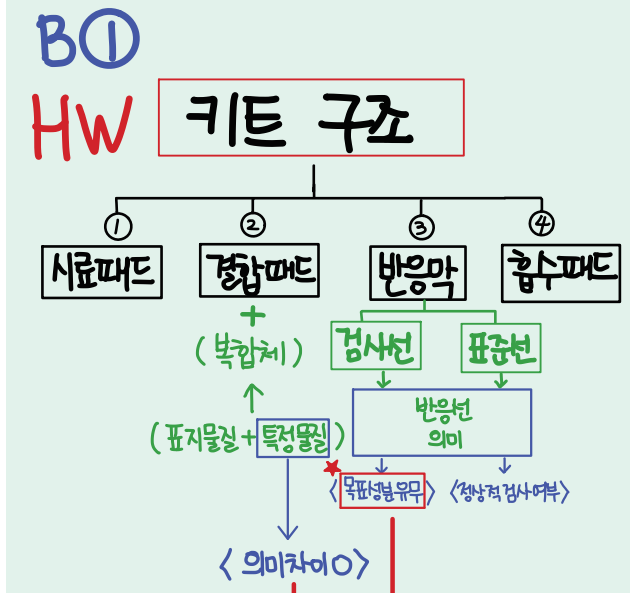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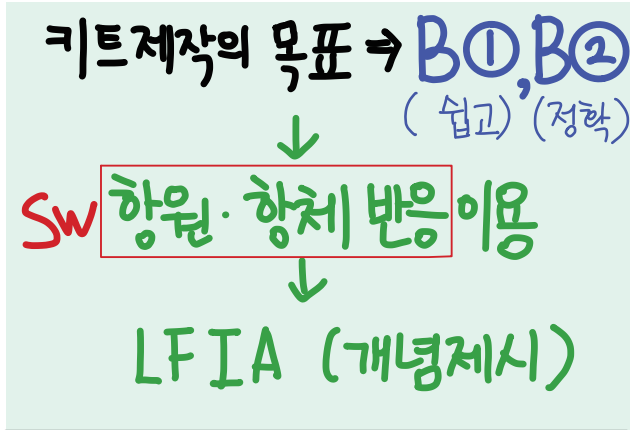
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을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을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SW
B②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
B②
심라



이상 : 민감도 ↑, 특이도 ↑ ⇒ 정확도 ↑
 ⇕
 현상 : 한계 ○

[1문단]

1)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2)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4)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5)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 행동 영역

- 첫 번째 문장 - 심플하게! 핵심 주어와 서술어 파악하기
- 2번째 문장 - 1번째 문장보다 중요! 1번째 문장과의 연결을 생각하며 어떤 정보를 재진술하며 구체화하는지에 주목해 독해하자!
- 추가된 정보, 새롭게 나타난 수식어 - 반드시 꼭!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재등장할테니 기억을 못해도 표시하기!

★ 사고 영역

1) 화제 제시 : 검사용 키트
 예시와 함께, ‘검사용 키트’라는 새로운 용어로 첫 문장을 시작하였다. 이 지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나, 문단을 조금 더 읽어 보면서 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자.

2) 화제 구체화 : 키트 제작
 검사용 키트 중에서도, ‘검사용 키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가 좁혀졌다. 키트 제작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지문이 서술될 예정이니, 순서나 구조에 대해서 정리할 준비를 하자.

3)~4) 화제 구체화 :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제시되고, ‘항원과 특이적 항체의 결합’으로 정의가 서술되었다. 키트 개발에 항원-항체 반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5) 2문단 화제 제시 :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

항체 제조와 연관하여, 키트를 개발하는 데 이용되는 ‘측면유동면역분석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주제에 관한 중요한 단어이니, 체크하고 넘어가자.

[2문단]

6)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7)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8)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9)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10)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11)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12)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13)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도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14)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행동 영역

- 추가된 정보, 새롭게 나타난 수식어 - 반드시 꼭!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재등장할테니 기억을 못

해도 표시하기!

- 물리적 구조(HW)와 논리적 구조(SW) - 융합해서 독해하는 훈련하기! [과학, 기술]
- 물리적 구조(HW) - 지문이나 문제에 그림·표·그래프 등이 없다면, 꼭 그려서 내용을 대응해가며 읽어볼 것

★ 사고 영역

6) LFIA 키트 소개

LFIA 키트를 ‘액상의 시료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도구라고 소개하였다.

7), 8) LFIA 키트의 구조

LFIA 키트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또한 시료가 흡수되었을 때도 같은 순서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순서’가 지문에 제시되면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 체크하도록 하자.

9), 10) 복합체와 표지 물질

복합체의 구성이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의 결합이라고 제시되었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 물질이고, 특정 물질은 키트마다 다르다고 하였으므로(차이점①), 반대로 표지 물질은 키트에 종류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10에서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고 언급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키트 방식에 따라 분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1)~14) 반응막의 요소 소개

반응막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시료 패드와 가까운 검사선, 그리고 먼 표준선이 있다. 검사선과 표준선은 발색 반응을 통해 각각 목표 성분의 유무, 그리고 검사의 정상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2문단처럼 기술 지문에 구조가 자세히 서술되는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 정리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3문단]

15)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16)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17)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18)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19)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20)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21)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22)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 행동 영역

- 추가된 정보, 새롭게 나타난 수식어 - 반드시 꼭!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재등장할테니 기억을 못 해도 표시하기!
- 물리적 구조(HW) - 지문이나 문제에 그림·표·그래프 등이 없다면, 꼭 그려서 내용을 대응해가며 읽어볼 것
- 병렬, 분류, 이항대립 - 개념들의 공통점 & 차이점 대응하며 읽기

★ 사고 영역

15) 화제 제시 : 직접 방식 vs 경쟁 방식

문장 10에서 예측했던 대로, LFIA 키트를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인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제시됨에 따라 공통점/차이점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방식의 차이점②가 제시되었는데, ‘검사선 발색 여부의 의미’이다. 앞서 말한 대로, 검사선의 발색 반응은 목표 성분의 유무 판정에 이용되는데, 판정 방법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16)~18) : 직접 방식

직접 방식에서 ‘특정 물질’(차이점①)은 ‘목표 성분에 결합하는 항체’라고 하였다. 항체는 목표 성분과 결합하고, 이후에 목표 성분이 다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게 되므로, 검사선에 목표 성분이 고정되게 된다. 이 때, 복합체의 항체(특정 물질)에는 표지 물질이 붙어 있으므로, 발색을 통해 목표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차이점②).

19)~21) : 경쟁 방식

경쟁 방식에서 ‘특정 물질’(차이점①)은 목표 성분 자체이다. 시료에 들어온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할 때 복합체의 목표 성분과 경쟁하게 된다. 시료의 목표 성분이 많으면, 복합체의 목표 성분(+표지물질)이 검사선에 고정되지 못하므로, 발색이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경쟁 방식에서 발색이 되면 목표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차이점②).

22) 용도의 차이점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의 차이점③이 제시되는데, 이는 용도의 차이이다. 직접 방식은 세균,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검출할 때, 경쟁 방식은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을 때(항생 물질) 사용한다.

이처럼 제시된 차이점들은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정리하고 넘어가자.

[4문단]

23)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24)**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25)**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26)**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27)**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28)**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29)**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 행동 영역

- 추가된 정보, 새롭게 나타난 수식어 - 반드시 꼭!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재등장할테니 기억을 못해도 표시하기!
- IF조건문(~하면)①, ② - 조건문과 결과(E) 문장 모두에 주목!
- 병렬, 분류, 이항대립 - 개념들의 공통점 & 차이점 대응하며 읽기

★ 사고 영역

23) 화제 제시 : 정확성
LFIA 키트가 휴대성/신속성도 중요하지만(1문단), 또 다른 척도로 ‘정확성’도 존재한다. 새로운 용어가 문단 맨 앞에 제시되었으므로, 이 단어가 추후의 내용을 이끄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계속 읽어보자.

24) 정확성의 측정 방법
검사를 여러번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다고 정확성 측정의 방법을 서술하였다.

25), 26) 진양성, 위양성
IF① : 키트가 목표 성분이 있다고 판정하면, 양성이다. 이때, 목표 성분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각각 진양성, 위양성으로 나뉜다.

27), 28) 진음성, 위음성
IF② : 키트가 목표 성분이 없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다. 이때, 목표 성분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각각 위음성, 진음성으로 나뉜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나뉘는 항목들은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이다.

29)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 ①

위양성과 위음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위양성과 위음성의 설명을 읽어보면, 사실과 반대로 키트가 판정하는 경우이다. 물론 위양성/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으면 완벽한 키트가 되겠지만(항상 옳게 판정),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지문의 설명이다.

[5문단]

30)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31)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32)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33)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 행동 영역

- 추가된 정보, 새롭게 나타난 수식어 - 반드시 꼭!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재등장할테니 기억을 못해도 표시하기!
- 비례 & 반비례 - 화살표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꼭 표시!

★ 사고 영역

30) 화제 제시 : '정확도'의 정의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 정확도라고 지문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정확성과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같다고 제시되었으므로, 정확도는 정확성의 척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

31)~32)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 성분이 존재할 때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인 민감도와, '목표 성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인 특이도이다.

다시 정리하면, 목표 성분이 있는 경우인 (진양성+위음성)의 경우 중에 (진양성)의 비율이 민감도이고,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인 (위양성+진음성)의 경우 중에 (진음성)의 비율이 특이도이다.

33)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 ②

위음성과 위양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키트의 목표이므로, 민감도가 특이도가 최대한 높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을 잘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내용구조도 | 거시독해의 기준

Q①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
구체화
↓
이항대립
① vs 2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구체적 상대적 적용
↓
분류
① ②
IF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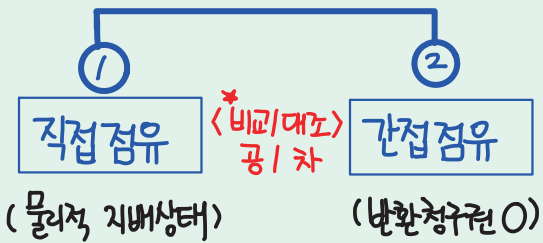
IF
IF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① 점유개정과 ②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Q②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

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①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예외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이에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
↑
C

Q① < 물건의 사용자가 주인일까? >
 ↓ < 점유.소유 개념제시 >
 A < 점유자, 소유자가 항상일치 X >

⇓
 < 개념구체화 >



⇓
 (구체적 사례의 적용)

물건의 소유권 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
 + 소유권 양도 **공시**

< 양수인이 간접점유하여 소유권이전이 공시 >



* <비교대조>
 공/차

Q② < 소유자가 아닌 양도인이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가? >

↓
 A < 가능 ○ >

⇓
선의취득

vs
 < 선의취득 X 사례 제시 >

[1문단]

1)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2)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3)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4)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 행동 영역

- 첫 문장은 항상 심플하게!
- 두 번째 문장에서 앞선 정보의 어디를 받아가고 있는지에 주목하기
- 질문(Q) & 답변(A) - 답변도출과정과 답변 정리 하며 읽기

★ 사고 영역

[1문단 핵심 point]

1) 질문(Q) 제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물건의 주인’인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자는 의식을 갖고 독해해야 한다.

2~3) 설명 제시 : 점유와 소유

앞의 질문에서 제시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는 사람, ‘물건의 주인’이 소유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점유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사람이 같냐는 질문이었다.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한 부분이다.

4) 답변(A) 제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즉,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2문단]

5)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6)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7)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8)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9)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10)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11)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행동 영역

- 이어지는 글에서 앞선 정보의 어디를 받아가고 있는지에 주목하기
-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범주를 파악하기
- 예시, 가정 - 구체적 정보들은 문제풀면서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기!
- (+a, +b) 추가된 정보, 새롭게 나타난 수식어 - 반드시 꼭!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재등장할테니 기억을 못해도 표시하기!

★ 사고 영역

[2문단 핵심 point]

5) 설명 제시 : 직접점유

1문단에서 설명한 점유에서 구체화되어 직접점유가 설명되고 있다.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6~7) 설명 제시 : 간접점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직접’점유에 대응되는 ‘간접’점유가 설명되고 있다. 간접점유는 반환 청구권을 갖는 상태이다.

8) 정리 문장 : 점유

앞에 설명된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모두 '점유'에 해당하는 개념임을 설명하고 있다.

9) 화제 제시 : 공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인 '점유'의 기능으로 '공시'를 추가하고 있다. 공시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10) 개념 제시 : 공시

공시 :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려 주는 것

11) 전개 방향성 제시 :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됨

1문단에서 제시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 경우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므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이 예시로 제시되고 있으니, 이 대상들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3문단]

12)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13)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14)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15)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16)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17)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18)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 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19)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 행동 영역

- 글의 흐름을 잡아주는 문장에 주목!
- 예시, 가정 - 구체적 정보들은 문제풀면서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기!

★ 사고 영역

[3문단 핵심 point]

12) 화제 제시 : 소유권 양도 (조건 제시)

소유권 양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함
- ② 소유권 양도 공시

13) 내용 연결 : 동산의 소유권 양도

11)에서 설명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를 설명하고 있다. 12)에 제시된 두 조건 중 ②에 해당하는 소유권 양도 공시에 대한 설명인데,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 ①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함
- ② 소유권 양도 공시 (점유 인도)

14) 화제 제시 : 점유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간접점유'에 관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당연히 소유권이 양도되는 경우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예시 제시

예시가 제시되었으니 본 개념과 대상들을 대응시키며 읽어야 한다. A는 양도인, B는 양수인에 해당

한다. 또한 A는 점유자, B는 소유자에 해당한다. 즉, 1문단에서 제시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16) 설명 제시 : 점유개정

점유개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17~19) 예시 제시 : 반환청구권 양도

반환청구권양도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15)와 같은 태도로 본 개념과 대상들을 대응시키며 읽어야 한다. C가 양도인, E가 양수인이고, D가 점유하고 있고 E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또한 1문단에서 제시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이다.

[4문단]

20)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21)**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23)**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24)**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 행동 영역

- 질문(Q) & 답변(A) - 답변도출과정과 답변 정리 하며 읽기
- 결론(따라서, 그 결과, 이와 같이 등) - 정리 문장이므로 제일 중요! 꼭 이해하며 독해
- 예외 - 대괄호로 표시하고 문제풀며 확인하기

★ 사고 영역

[4문단 핵심 point]

20) 질문(Q) 제시

특이 경우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지는 글에서 찾으려 하자.

21~22) 화제 제시 : 선의 취득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인 '선의취득'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양수인의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함
- ② 점유 인도로 공시를 함

23) 예외 제시 : 점유개정

3문단에서 설명한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반환청구권 양도로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외가 제시되었으니 주목해야 한다.

24) 설명 제시 : 선의취득

선의취득의 경우,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을 제시한다.

[5문단]

25)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26)**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27)**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28)**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행동 영역

- 예시, 가정 - 구체적 정보들은 문제풀면서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기!
- 예외 - 대괄호로 표시하고 문제풀며 확인하기

★ 사고 영역

[5문단 핵심 point]

25) 예외 제시 : 동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
또 다른 예외가 제시되고 있다.

26) 부연 설명 : 등록과 동기

예시를 들며 등록과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각 대상에 어떤 예시가 해당하는지 파악해둬야 한다.

27~28) 이유 제시

예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가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거래 안전보다 중시한다는 내용을 잡았으면, 앞의 선의취득은 소유자의 권리보호보다 거래 안전을 중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열 지문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③	2	①	3	④	4	②	5	⑤
6	⑤	7	②	8	③	9	①		

해설

[1~4] LFIA 키트

1.

③ [2문단] LFIA 키트에서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은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 유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사선은 발색되지 않아도 표준선이 발색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2문단] LFIA 키트의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하므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 ② [1, 2문단]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키트이며,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LFIA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목표 성분은 항원에 해당한다. ④ [2문단]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나고,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각적으로 시료의 목표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4문단]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어도 키트가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는 위양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직접 방식의 경우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2.

① [3문단]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하지만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자체이다.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기 위해 복합체의 목표 성분과 경쟁하게 되며,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항체와 결합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② [3문단]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의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③ [2문단] 결합 패드의 검사선은 표준선보다 시료 패드에 더 가까우므로,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시료는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④ [2문단]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서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을 통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⑤ [2문단] LFIA 키트를 이용하여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표지 물질이 아니라 복합체의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과 관련이 있다.

3.

④ 5문단에 따르면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함에도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위음성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시료에 대해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는 진음성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② [3문단] <보기>의 살모넬라균은 키트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이므로 항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직접 방식의 LFIA 키트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키트의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따라서 ㉠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에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이지 표지 물질에 항원인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1문단] LFIA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므로 ㉠의 개발에는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 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LFIA 키트가 개발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 LFIA 키트는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④ [5문단]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므로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는 데에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⑤ <보기>에서 ㉡가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는 낮다고 하였으므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가 위양성일 수 있다.

[5~9]

5.

⑤ [3문단]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1문단]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하는데, 따라서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가 된다. ② [1문단]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③ [3문단] 가방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에는 점유 인도가 포함된다. ④ [2문단]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6.

⑤ [3문단] 피아노의 소유권은 점유에 의해 공시되고,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 따라서,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피아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2문단] 물리적 지배를 하지 않아도 간접점유를 할 수 있다. ② [3문단]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간접점유도 점유의 한 형태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 간접점유자가 없어도 직접점유자가 있을 수 있다. 물건을 빌려주거나, 보관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만 존재하게 된다. ④ [2문단] 피아노를 빌려주게 되면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도 소유자로 인정된다.

7.

② ㉠과 ㉡의 차이점인 '선의취득 인정 여부'에 주목하면, ㉠은 거래 안전을 우선시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은 본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의 양도가 공시되는 것은 ㉠이 아닌 ㉡이다. ③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로 공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의 물건들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⑤ [3문단] ㉢은 점유개정이 아닌 등기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된다.

8.

③ [4문단] 갑과 을의 양도 계약 이후에, 금반지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점유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점유개정으로선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갑과 을의 양도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에 의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갑이 계약 이후에도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갑은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 을은 금반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갑이 금반지의 실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병과 을의 계약에서, 양수인인 병은 양도인인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라고 믿었고,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통해 갑과는 상관없이 병원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9.

① 본문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므로, ①의 '일어난'과 가장 의미가 가깝다.

[오답피하기] ② 여기서 '일어났다'의 의미는 '소리가 나다'이다. ③ '일어나게'의 의미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이다. ④ '일어나지'의 의미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이다. ⑤ '일어나므로써'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에 해당한다.